

삶과 죽음 초월한 깨침의 노래

정후스님 '죽어서 시가 되는 삶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니요/ 오온 또한 내 소유가 아니네/ 흰칼이 목에 닿으니/ 오히려 봄바람 자른 것 같네." <조론>을 저술한 중국의 대석학 승조스님이 죽음에 이르러 토해낸 임종계(臨終偈). 육체와 오온이 공함을 일생 동안 느꼈으니 죽음을 맞아 그 느낀 것을 봄바람 자르듯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을 수 있다는 여유가 느껴진다. 우리들은 죽을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은 오히려 죽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생사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옛 선사들의 임종계를 짧은 시의 형태로 재구성한 <죽어서 시(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우리는 그런 의문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정후 스님은 승조 스님의 임종계를 이렇게 평했다. "이른 새벽 나를 부르는 소리에/ 깨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었다/ 밤새 머물고 있던 어둠이/ 떠나는 소리였고/ 별들이 빛을 거두어/ 하늘로 돌아가는 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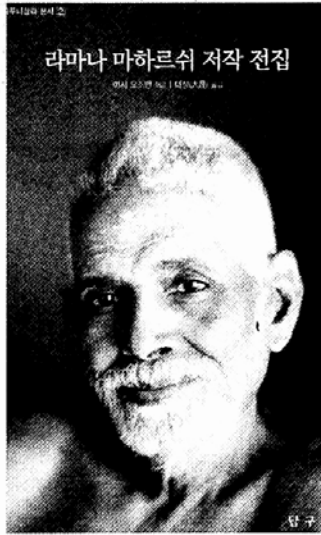
별들이 빛을 거두어 돌아가듯 인간도 자성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삶과 죽음을 초탈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의 열반송을 오늘날의 시어로 되살려 내고 있다. 값 5천원. 김중근 기자

몸도 마음도 아닌 나는 누구?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전집' 대성 스님 옮김

"나는 누구인가." "일곱 가지 기질로 이루어진 몸은 내가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고, 색을 보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는 다섯 가지 지식기관은 내가 아닙니다. 말을 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행위기관은 내가 아닙니다. 호흡 등의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뿌리나 등 다섯 가지 생명기원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알에서 말한 것들을 모두 '이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한 뒤에 단 하나 남는 '나는 존재한다' 하는 자각입니다."

육체·마음의 애고 벗으면 순수한 존재 진아 깨달아



마하르쉬의 시와 산문 등의 저작을 망라한 성산 아루나찰라의 진인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주된 자기 탐구법이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진아(眞我)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데 주안을 둔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들이 완전무결한 실재로서의 본성을 망각하고 생사윤회를 거듭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육체나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아는 무지(無知) 때문이다. 이 육체가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애고를 소멸하면 순수한 존재자의 식인 자신의 성품, 곧 '진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신간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에서 오즈번 역음, 대성스님 옮김. 탐구사는

삼았던 아루나찰라산에 바치는 '아루나찰라 다섯 찬가', 실제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인 운문인 '실재사실승(實四十頌)', 수행과 깨달음을 간결한 언어로 노래한 '가르침의 핵심'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그가 지은 시(詩)들도 있다. 이 시들은 존재와 개인적 영혼의 합일에 대한 열망과 헌신 그리고 깨달음의 상태에 관한 심원한 철학적 사유들이 마하르쉬의 탁월한 시적 감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육필 시·산문 등 총망라 마하르쉬 저서 결정판

번안과 번역은 마하르쉬의 독창적 저술 이라기보다는 그전의 여러 종교적 저작을 그의 모국어인 따밀어로 번역하거나 번안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가바드 기타>중에서 핵심적인 구절 42연만 가려 뽑은 '찬가의 노래', 힌두경전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번역한 '씨드와 나뭇가지', '데비칼룻따라' 등이 수록돼 있다.

마하르쉬는 이론적 바탕 없이 진아를 깨달았듯이 자신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이론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모두 독자들을 진아지로 향하도록 도우려는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이 책은 마하르쉬와 관련된 책들을 전문적으로 번역해 오고 있는 역자 대성 스님이 독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역주로 보완하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본문 중의 여러 부분에 대해 다양한 번역을 해 놓아 독자의 편안함을 더해 준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 나온 책

▲관음(觀音) 스님 지음, 우리= 관음성지 답사기, 강화 보문사, 낙산 홍련암, 남해 보리암 등 3대 관음도량을 비롯해 19곳의 관음 성지를 조명한 책. 오래 '불교 성지 답사기' 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은, 한번 손에 쥐면 최소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읽어야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게 읽힌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하여 관음 도량을 열었던 옛 스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연기설화 등이 그 재미를 더해준다. 값 9천원.

▲산사의 메아리(원인 스님 지음, 장경각)= 사람은 누구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체제 속에 살고 있다. 과거는 현재를 있게 하고, 미래는 현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늘 과거를 돌이켜 현재를 살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하여 현재를 살려야 한다. 특히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무지와 무명으로 덮여 있다. 때문에 미래를 밝혀줄 마음의 등불을 지녀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쓰여진 수필집이다. 값 8천원.

▲숲아리 나무아임김진 지음, 다른 세상= 우리 땅에서 자라는 나무 130종의 생태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책. 나무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나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어서 나무가 모여 이른 숲의 환경과 역할에 대해 적고 있다. 또 기후대로 구분하는 한편 가로수가 아름다운 나무,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 꽃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이용하는 나무 등 재미있게 나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값 1만5천원.

▲극락세계 가고 싶어라정태형 강해 동산법문= 정토신앙의 근본 교전으로 일컬어지는 <무량수경무바제사한생계(정토왕생론)> 강해서. 상·하 두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세친보살이 <무량수경>의 일고 정토왕생을 기원하며 쓴 책이다. 그 내용은 오락의세의 중생은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력의 의지하여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값 9천5백원.

▲음식궁합 2유태종 지음, 아카데미북=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한방 요리와 서양의 전통 요리를 통해 보는 맛있고 신기한 음식궁합, 식물성 음식, 동물성 음식, 건강보양식은 물론 술과 차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음식의 성분, 서로 다른 재료의 상승효과와 반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영양적 가치를 구명하고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의 나침반	송 산	열림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다산책방
3	금강경 강의	혜 거	보통사람들
4	절음 기차게 잘하는 법	정 건	빛의마을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6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경각
7	만행-하버드에서 회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8	선의 역사와 사상	성 분	불교시대사
9	마하리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공양
10	생활속의 불교	권 기 종	숨

도서 안내: (02)737-0695

생활이 곧 모범인 천태사상

이명자 지음 '천태불교학'



중국과 우리나라의 천태불교 성립배경과 전개 그리고 사상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천태불교학>(불지새이 나왔다. 글쓴이는 평생 천태사상을 연구해오다 최근 정년 퇴임한 이명자선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천태사상을 반아공안에 기초를 두고 제법실상의 묘리로 전개한 불교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천태불교를 불교사상의 극치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여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의 정점을 이루는 한편 이론과 실천은 물론 사상까지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천태의 전개' '한국 천태의 전개'로 구성된 이 책은, 성립배경부터 구조, 사상체계 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자연친화적 상생의 불교관 조명

고영섭 지음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자연 환경 생태가 파괴하는 것을 우려하는 한편에서 그 대안으로 우리의 현실에 바탕을 둔 생태철학에 발맞추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21세기 제1의 철학은 생태철학'이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연기론과 보살의 자비행을 중심으로 생태학을 살핀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연기새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이 책을 쓴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는 '불교의 전제에는 생태에 대한 다양한 교설이 실려 있다. 그런데 그 교설의 궁극적 지향은 모두 중생에 대한 자비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이것은 부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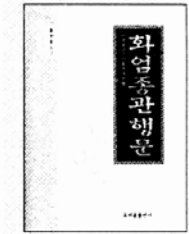
로부터 시작된 불교 수행자의 삶이며 본래부터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울창에 나오는 생태관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연 친화적인 사유, 즉 생태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수행해 나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표적 생태학이라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단행본이 거의 없는 불교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이 땅에서 불교생태학의 초석을 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불교의 자연관·생태관·환경관' 등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글쓴이는 불교의 생태관은 기본적으로



로 '함께 함', '보살핌', '무소유', '비폭력'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출발은 보살적 인간상의 제시와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보살적 인간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어떠한 보편적 가르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생태관은 유정과 무정이 모두 함께 하고, 보살피는 연기와 자비의 관점 위에 선 상생의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값 6천9백원. 김중근 기자

화엄불교학 수행법 규명



'화엄오교장' '화엄종 관행론'

화엄종의 교학·수행체계를 밀도 있게 규명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불학연구소는 화엄종의 가르침을 이론과 실천 두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불학총서 4권 <화엄오교장>과 5권 <화엄종관행론>을 내놓았다. 화엄교학의 개설서인 <화엄오교장>은 화엄종 제3조인 법장 스님이 저술했으며,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불교학 개론서로 주해까지 상세하게 달았다. 화엄종관행론에는 '화엄오교지관' '화엄법계관론' '화엄일심심현론' '망진환원관' '오온관' '삼성원용관론' '주화엄법계관론' 등 화엄종의 주요 실천수행법을 하나로 묶었다. 김원우 기자

중국 서안 국보사찰 선유사 신라대덕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 황실사원 법문사 현존 유일의 불지골(佛指骨) 사리 친견 —
— 중국 4대 불산 지장성지 구화산 음력 윤 4월 천도재 —



수당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고, 당송대의 수많은 문인화사들이 거쳐갔던 중국의 국보사찰 선유사. 당나라 대종제 구법차 오셨다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선유당에서 기우제를 지내신 "왕오천국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고승 혜초스님. 탕건설로 인한 선유사의 수몰때문에 인근 언덕위에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에 대응보전 법왕탑과 나란히 혜초스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 현판으로 제막식이 봉행됩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 국보사찰에 세워지는 한국스님을 위한 최초의 기념비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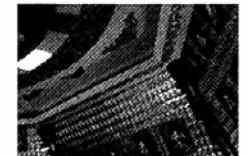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
날기 2545(200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중국서안/구화산 5박6일 - 98만원
1차 - 6월 11일 14시 출발 (12시 집결)
2차 - 6월 12일 10시 출발 (08시 집결)

- ☞ 1차 출발편과 2차 출발편은 기념비 제막식 행사 관계로 2일째와 3일째의 일정이 서로 맞바뀌며, 항공 사정상 일정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 인천신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 동참금에는 중국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3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증명 : 청화촌스님

- ☞ 세 부 일 정
- 제 1일 : 서안 도착후 간단한 시내 관광
- 제 2일 : 대흥선사, 대인탑, 병마용경, 홍교사 순례, 화청지(유형은천옥)
- 제 3일 : 선유사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동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문사 불지골사리 친견
- 제 4일 : 구화산 도착후 옥신보전 천도재, 고배경대 순례
- 제 5일 : 구화산 개신시찰인 화성사 순례 무호 광제사 순례, 남경 현무호 공원 관광
- 제 6일 : 인천신공항 도착후 해산



법문사 법왕탑의 지공



법문사 사리공법대와 보주정단, 불지골사리



황실사원 법문사 전경



진시황 병마용경



혜초스님께서 기우제를 모신 옥녀담의 거북바위



지장보살 김교각스님이 구화산에 들어가시기 전 수행했던 무호 광제사



진시황릉